



박유미(안양대)

1. 서론

2018년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성범죄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MeToo”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시선은 가해자 중심이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모, 옷차림, 행동을 언급하며 피해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

www.kci.go.kr

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 교회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구약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구약에서 성폭력 사건이 나오는 본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구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다섯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34장의 세겔의 성폭력 사건과 사사기 19장의 기브아 거민의 성폭력 사건과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집단 납치 사건과 사무엘하 13장의 암논의 성폭력과 사무엘하 16장의 압살롬의 성폭력 사건이다.¹⁾ 여기서 사사기 21장의 성폭력 사건과 사무엘하 16장의 성폭력 사건은 이전의 사건인 사사기 19장과 사무엘하 13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세 개의 본문 모두 성폭력을 “망령된 일(מַלְאָכָה, 네발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이페(A. Keefe)는 단순 성폭력 사건과 달리 ‘네발라’로 표현된 성폭력은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무질서, 혼돈, 그리고 평화를 붕괴시키는 죄악이라고 설명한다.²⁾ 그러므로 네발라로 언급된 세 개의 사건은 성폭력 문제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성폭행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더 큰 폭력인 집단적 학살이나 지파간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이 공동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성폭력이 공동체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배경과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 보호자와 공동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924).

1) 여기서 사건의 명칭을 피해자의 이름 대신 가해자의 이름으로 부르려고 한다.

2) A. Keefe, "Rapes of Women/ Wars of Men", *Semeia* 61 (1993), 82.

통해 성폭력이 여성 개인의 문제 혹은 남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문화와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2. 성폭력이 일어났던 당시의 배경

1) 공통적 배경: 가부장제

다나와 레위인 첩과 다말이 살았던 구약 시대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이다.

가부장이란 말 그대로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을 일컬으며 가부장제란 가족 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지지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가부장제는 개별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를 지지하고 구조화하는 체제이다.³⁾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구약 시대는 남성 중심, 가장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다. 블록(Daniel Block)은 가부장제가 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만 오남용이 문제라고 하였다.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부장제는 남성 가부장이 가정과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내와 딸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종속되며 여성의 성은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행해진 성범죄는 남편과 아버지(혹은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졌다.⁵⁾ 그리고 가부장 사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자

3)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동녘, 2015), 14.

4) Daniel Block, *Deuteronom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2), 531.

5) 참조, Carolyn Pressler, "Sexual Violence and Deuteronomic Law", in *A Feminist Companion to Exodus-Deuteronomy*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03.

의 위치에 있었고 남성들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보단 오히려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여성을 희생시키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가부장 체제는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사회였고 이런 가부장체제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발생과 전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된다.

2) 각 사건의 배경

세겜 성폭력 사건은 가나안의 거주민으로 살던 족장 시대에 일어났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 근처에 밭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 무사히 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한 엘엘로헤이스라엘(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는다(창 33:18-20). 이런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거주한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세겜이 야곱에게 기꺼이 땅을 판 것을 보면 세겜과 야곱 집안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⁶⁾ 그러므로 본문에서 볼 때 디나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야곱 집안과 세겜에서 부정적인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소수 집단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야곱의 집안이 세겜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약자의 위치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힘의 관계가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다가 성폭력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야곱 가정의 내부의 차별 문제나 우상숭배를 하던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세겜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나무에 묻고 떠나는데(창 35:4)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살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결국 여호와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영적 타락과 힘의 열세가 야곱의 아들

6) 참고로 아브라함이 사리를 정사하기 위해 헛자손에게 땅을 살 때는 상당히 긴 협상의 절차를 걸치며 어렵게 구매한다(창23장).

들의 폭력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암논의 성폭력 사건은 다윗 왕정 시대로 왕권이 안정되고 주변의 적들을 제압한 평화의 시대로 다윗 왕정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일어났다. 그리고 암논 사건은 다윗이 밋세바를 성폭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다음에 일어난다. 다윗의 범죄는 첫째, 자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여성을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폭행한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금지된 여성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유부녀를 성폭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 범죄이다. 세 번째 특징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른다. 다윗은 밋세바의 임신으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밋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요압을 이용한다. 이런 다윗의 성범죄는 암논의 성범죄와 상당히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⁷⁾ 그러므로 다윗의 성범죄는 암논의 성범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화만 낼 뿐 지혜롭고 올바르게 재판하고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브아 거민의 성폭력 사건의 시대는 사사시대이며 특별히 사사기의 화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고 평가한 시기로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은 개인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저지른 성범죄와는 달리 공동체의 환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환대란 “그를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접근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그리고 특별히 환대법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한 관습으로 손님이 자신의 성읍에 오면 자신

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성폭력, 성경, 교회」(가제) 중에서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는가”라는 글에서 다루었다.

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207.

의 집에 초청하고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그런데 형제로 여겨진 이스라엘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서 자신을 영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기브아가 사회적 윤리와 미덕이 붕괴된 각박하고 몰인정한 성읍이라는 것을 나타낸다.⁹⁾ 이 성읍 사람들은 외부인에 대해 환대 대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바로 혐오와 배척과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폭행을 저지른 암논과 기브아 거민의 가정적, 사회적 상황이 영적,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개인적인 성범죄를 가정과 사회의 악영향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암논의 경우는 분명히 다윗의 악영향 하에 있었다. 그리고 기브아의 집단 성폭력 사건은 그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

3. 세 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찰

이 단락에서는 성폭력 사건 자체를 논의하려고 한다. 세 성폭력 사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세겜의 성폭력 사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디나이다. 여기서 화자는 디나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디나, 레아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인데 보통 자녀는 ‘~의 아들’, ‘~의 딸’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어머니 ‘레아의 딸’이란 드문 표현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웬햄(Gorden Wenham)은 그녀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딸이라는 것이 야곱

9)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39-340.

이 디나의 치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이유라고 보았다.¹⁰⁾ 그러므로 이 구문은 디나에 대한 야곱과 가부장 사회의 이중적 차별을 나타낸다. 디나는 레아의 자녀이자 딸이란 이유로 남자 형제들에 비해 야곱의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이다.¹¹⁾

야곱 가족이 세겜 근방에 살 때, 어느 날 디나는 그 지방의 여성들을 보러 나갔다.¹²⁾ 그런데 세겜의 우두머리인 세겜이 디나를 보았고 그녀를 끌고 가서 성폭행하였다. 2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녀를 잡아 그녀를 눕혔고 그녀를 욕보였다(וַיִּקַּח אֹתָהּ וַיִּשְׁכַּב אִתָּהּ וַיְנַפְּסֶנָּה)" 바이카 오타흐 마이쉬카브 오타흐 바에아네하)"고 표현을 한다. '눕다'라는 뜻의 단어 שכב(샤카브)가 목적격과 같이 쓰이면 '~를 눕히다'라는 뜻으로 종종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표현한다(민 5:13,19; 겔 23:8).¹³⁾ 그리고 נָפַס(아나)는 '천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종종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상황에 사용되며(신 22:24,29) 사사기 19장 24절, 사무엘하 13장 14절의 성폭력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겜이 강제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그녀를 집에 잡아 둔 것은 그가 세겜의 우두머리로서 힘이 있었고 야곱의 가족은 이방인이자 거류민으로 세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세겜이 야곱 가족을 알잡아 봤기 때문이다. 만일 야곱의 집을 자신과 대등한 집으로 보거나 최소한 존중하였다면 디나를 보고 맘에 든다

10) 고든 웬함, 「창세기16-50」(박영호역), (서울: 솔로몬, 2001), 551.

11) 송봉모는 디나가 태어날 때 그녀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창30:21)과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압박감을 견딜 때 디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창32:23)을 근거로 디나가 남성 중심 문화에서 차별받았다고 말한다. 송봉모, "디나가 성폭력 당한 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창34,1-31)", 「신학과 철학」, 5집 (2003), 33.

12) 칼빈이나 웬함은 디나가 성폭력 당한 것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라며 성폭력 당한 책임이 디나에게 있는 것으로 말하며 비난한다. 그리고 사르나는 1절의 נָפַס(야짜)가 교태를 부리거나 성적으로 난잡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서 디나가 밖으로 나간 것 자체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적 행동으로 해석을 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러 나간다는 말을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행동이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참조, 웬함, 「창세기16-50」, 551. 박유미, "칼빈의 해석은 영원한 진리?: 여성 본문에 대한 칼빈구약주석 연구",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122. Nahum M. Sarna, *Genesis =Be-reshit :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33.

13) 웬함, 윗글, 551.

고 잡아 성폭력하고 잡아 놓을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야콥이나 디나의 형제들에게 결혼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세겜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후 결혼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위계와 힘에 의한 성폭력이 분명하다. 3절에서 그가 디나에게 연연하고 사랑하며 말로 위로했다고 하면서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더라도 2절에서 행한 세겜의 성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런 태도 또한 가부장 사회의 남성이자 권력자로서 가지는 힘에서 나온 행동이지 성폭력을 당한 디나의 심정을 헤아리는 태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세겜의 태도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만 없는 것은 가부장 사회 속에서 성폭력 당한 디나의 입장에서 보면 세겜과의 결혼이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결혼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던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좋은 결혼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법은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성폭행 피해 여성의 손실을 인식하고 남자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이혼하지 못하게 하였다(신22:29).¹⁴⁾ 그러므로 세겜은 최소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2) 기브아 불량배의 성폭력

기브아 불량배의 성폭력은 세겜이나 암논의 성폭력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들의 성폭력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외부인을 배척하고 몰아내려는 적대적 행위이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손님을 끌어내서 그를 성폭행하겠다고 소리 지른다. 이들이 집주인인 노인의 환대를 받고 있는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한 것은 노인도 외부인으로 손님을 접대할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14) Pressler, 윗글, 104.

다.¹⁵⁾ 여기서 ‘끌어내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 즉, 기브아 성읍 안에 레위인과 같은 외부인을 위한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이다. 그리고 다수가 때로 몰려와 처음 보는 동성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동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레위인에게 성폭력을 하려고 한 이유는 자신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온 외부인에 대해 가장 잔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열등한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며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인이 이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하며 말려도 듣지 않는다. 이들의 관점에서 노인도 기브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명령이나 충고를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노인은 폭도들에게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끌어낼 테니 오직 레위인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다. 그는 남성인 레위인을 위해 여성인 딸과 레위인 첩을 희생시키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기브아 노인이 남성인 레위인만을 보호와 환대의 대상인 인간이고 레위인 첩과 자신의 딸인 여성은 남성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지 희생시켜도 좋은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브아 사람과 다르게 환대법을 지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던 노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혐오적인 가부장제가 보편적인 정서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레위인을 요구하자 노인의 말에서 단서를 얻은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아 밖으로 끌어낸다. 손님으로서 자신을 환대한 노인의 딸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첩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아마 첩은 나가지 않겠다고 울며불며 발버둥 치며 힘껏 저항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편이 그녀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내보냈는데 ‘붙잡다’로

15)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타난 환대에 관한 소고-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경이해”, 『구약논단』 45집 (2012년 9월), 51.

번역된 동사 하자크(פָּחַ)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잡은 것이 아니라 ‘강하게 꼭 잡았다’는 의미로 강제적으로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본문은 첩의 외침은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은 노인도 남편인 레위인도 그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다는 의미이다. 니디치(Susan Niditch)는 이런 레위인과 노인의 행동에 대해 여성들을 이용한 후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거나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세계관이 함축되어 있으며 이 남성들은 비겁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살해에 공모하고 언약을 파기한 것이 분명하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평가하였다.¹⁶⁾ 결국 끌려나온 첩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화자는 첩이 얼마나 오랫동안 끔찍한 폭력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함으로 잘 나타낸다. 그녀는 밤새도록 성폭력을 당하였고 새벽에 풀려났고 동틀 때 자신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왔다. 본문은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 등 시간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녀가 밤새도록 폭력에 내던져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⁷⁾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레위인은 집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잤다. 그녀가 새벽녘에 풀려나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거나 맞이해 준 사람이 없었기에 그녀는 아침에 될 때까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녀는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당한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남편은 길을 떠나기 위해 나왔다가 첩을 보고 ‘가자’라고 한마디 하고 그대로 나귀에 그녀를 싣고 집으로 출발한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28절)”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그가 그녀를 나귀에 싣고(וַיִּקַּח עָלָיו הַחַמּוֹר) 바이카 헤하 알-하하모르’)로 표현되어 있다. 본문에 따르면 아직 그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이 첩의 안부나 상태보다는 무서운 곳을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녀의 생사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인이 첩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챙기는 비

16) Susan Niditch,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93.

17) 박유미, *뫼글*(2018, 7), 345.

정한 사람이며 첩을 더 이상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브아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분명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지만 첩의 입장에서 자신을 직접 끌어낸 레위인과 그런 아이디어를 준 노인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환대를 해야 할 손님을 적대하고 배척하는 과정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은 외부인이자 여성인 레위인의 첩이었다. 이 사건은 사회가 비윤리적이고 무정할수록 희생당하는 사람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레위인 첩은 남성 집단의 공모에 의해 성폭력당하고 죽임당한 것이다.

3) 암논의 성폭력

암논의 성폭력 사건은 세겜의 사건처럼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말에 대한 소개도 디나와 같이 여성을 차별한다. 압살롬과 암논은 다윗의 아들로 소개되는 반면 다말은 다윗의 딸이 아닌 압살롬의 누이로 소개된다. 다말이 압살롬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윗과 연결되게 표현한 것은 다윗이 딸인 다말에 대해선 아들들보다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암논은 아름다운 배다른 누이동생에게 욕망을 품게 된다. 레위기 18장 9절에 따르면 이복 남매간의 성관계는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논의 욕망은 옳지 않다. 그런데 2절에 따르면 암논은 다말이 누이동생이란 사실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단지 처녀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병이 생긴다. 이런 암논의 욕망은 힘을 가진 남성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서 오는 화병으로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소유하고 쟁취하려는 왜곡된 욕망이다. 이런 생각은 암논이 다말을 성폭력한 후에 모욕적으로 내쫓는 것을 보면 매우 타당해 보인다.

이런 암논에게 두 명의 남성 조력자가 등장한다.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나답으로 암논의 사촌으로 화자는 그를 매우 지혜로운 자로 소개한다.¹⁸⁾ 그는

18) 우리말에서는 간교한 자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text{יָדָבְרָהּ בְּחָכְמָה}$ (이쉬 하캄 메오드)로 직역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고 조언하며 구체적으로 방법도 알려준다. 그리고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다윗이 병문안을 왔을 때 다말을 보내어 그의 손으로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암논을 편애하는 다윗은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말이 성폭력 당하도록 만든 조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주러 왔을 때 힘으로 그녀를 잡고 성폭행한다. 다말은 이러지 말고 자신을 원하면 아버지께 말씀드려 결혼을 하자며 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암논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성폭행하는데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암논이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라고 말하며 강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후 암논은 다말에게 바로 싫증낸다. 15절에서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며 암논의 변심이 매우 급격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마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 다말을 쫓아내라고 명령한다. 여기서 암논은 다말을 ‘이것(מַיִי) 조트’)이라 부르며 마치 거추장스럽고 더러운 물건을 치우듯이 다말을 내쫓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명령한다. 그는 매우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다말을 대한다. 이에 대해 김회곤은 암논이 다말을 창녀처럼 취급했다고 말한다.¹⁹⁾ 이런 태도에 대해 다말은 다시 이런 행동이 더 악한 것이라며 항의하지만 암논은 듣지 않는다. 암논이 이렇게 다말의 말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그녀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성적 대상 그것도 한 번 놓고 버리는 장난감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암논의 탈법적 권력이 잘 드러난다. 일반 여성도 아닌 왕의 딸인 공주를 성폭행하고 전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즉, 처녀를 성폭행하면 이혼할 수 없는 결혼(신 22:28-29)을 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권력과 비호가 암논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암논의 성범죄는

을 하면 '매우 지혜로운 남자'이다. '지혜(חָכָם) 하킴)'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악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참조, Antony F. Campbell, 2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5), 128.

19) 김이근, “다윗의 딸 다말 애도송-지혜를 능욕하는 왕권을 고발하며”, 『기독교사상』, 30집 (1986년 9월), 107.

단순히 암논의 나쁜 인간성의 문제가 아닌 다윗 왕가의 타락한 권력의 문제와 결합된 권력형 폭력이다.

4. 피해자 여성의 목소리

창세기 34장과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보면 피해자인 디나와 레위인 첩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는 '나갔다'라는 말만 그녀가 주어로 등장하고 디나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지만 디나의 말과 행동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의 성폭력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세겜의 구애에 대해 좋게 생각했는지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또한 오빠들이 세겜과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때 원수를 갚게 되었다고 기뻐했는지 아니면 세겜과 결혼을 하여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분노하고 슬퍼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그녀를 둘러싼 남성들 그 누구도 피해 당사자인 디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은 피해자인 디나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남성들의 생각과 감정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사기 19장에서도 레위인 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본문은 희생당한 그녀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다. 19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익명으로 이런 익명성은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 여성은 언제든지 레위인 첩처럼 희생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사사기 21장에서 집단적인 납치 강간으로 나타난다. 레위인 첩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언제 여행을 떠날지 결정할 수 없었고 어느 성읍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의 손에 끌려 나갈 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으며 남편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한 그녀가 성폭행당하고 돌아와서 문 앞에 엎드려졌을 때도 “문 열어 달라”, 혹은 “도와 달라”는 말을 했을 것

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철저히 그녀의 목소리는 삭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기브야 노인 집에 있던 그 누구도 레위인 첩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녀의 끼쳐가는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삭제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당시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혹은 한 가문의 재산으로 여기던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부장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생각보다는 여성의 보호자인 남성을 모욕하고 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²⁰⁾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성에 비해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가 심하며 율법은 여성의 성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²¹⁾ 이런 이유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디나는 말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디나의 보호자격인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서 사건을 진행한다. 레위인 첩의 경우도 피해 당사자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지만 그녀의 남편이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선다. 그런데 이것도 자신의 첩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 왜냐하면 그는 첩을 자신의 손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첩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하기 어렵다. 화자가 디나와 레위인 첩의 목소리를 삭제한 두 번째 이유는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들과 여성들의 남성 보호자들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폭력범들은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무시했고 남성 보호자들은 그녀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 막았다는 것을 알리며 남성 보호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끔찍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와 피해 여성에 대한 무시와 비인간화는 목소리를 낸

20) 그는 신명기의 성폭력 법에 깔려 있는 전제와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한다. 1. 여성의 성폭력은 남성의 법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2. 여성의 죄 혹은 무죄는 중요한 쟁점이다. 3. 강간당한 여성 혹은 소녀는 손상된 상품이다. 4. 그리고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여성의 성은 남성의 재산이다. Pressler, 윌글, 112.

21) 캐롤 A. 뉴섬/사론 H. 린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편」(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62.

다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말은 세 명의 피해자중 유일하게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어느 남성보다 지혜롭고 정의로웠다. 그녀는 암논이 성폭력을 하려고 하였을 때 ‘어리석은 일(הַיִּשָּׁרִית נִבְּלָה)’이며 이렇게 되면 자신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암논과 자신을 위해 이 일은 안된다고 막으려 대신 자신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라고 제안한다. 여기서 요나답과 다말의 지혜 경쟁이 있다. 요나답과 다말은 둘 다 다윗을 중재자로 제안하지만 요나답은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다윗의 힘을 사용하라고 권한 반면 다말은 다윗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취할 수 있는 결혼을 요청하라고 제안하는데 요나답은 죽음의 길을 그리고 다말은 살 길을 제안하며 지혜자²²⁾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말의 제안은 좋아서 하는 제안이라기보다 폭력적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²³⁾ 만약 이런 보호도 받지 못하면 다말은 평생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다말의 말은 암논에게 묵살된다. 암논은 다말을 단순히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다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눈앞의 다말을 힘으로 성폭력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말은 성폭력 후에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물건취급하며 내쫓으려는 암논에게 이것은 이전보다 악하다며 질책하였다. 김이곤은 다말의 질책 속에서 다윗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질책 속에 담긴 예언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²⁴⁾ 하지만 다말의 이런 말도 무시되고 결국 다말은 암논의 집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다말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알리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부르짖는다. 먼저 그녀는 공주의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자신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의 처소까지 가는 동

22) 참조, 김이곤, 윗글, 103.

23) 김호경, “[성서와 설교: 왜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낮은 목소리-다말”, 『기독교사상』 48 집 (2004년 7월), 120.

24) 김이곤, 윗글, 105-106.

안 계속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폭력과 암논의 죄를 알리며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우리말에 “울부짖다”로 번역된 단어는 *ἔβρι*(자아크)로 이는 부당한 고통을 겪은 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상의 용어로 신명기 22장 23-27절에 의하면 강간을 당한 처녀가 부르짖으면 여자에게는 허물이 없고 남자에게만 허물이 돌아가고 부르짖지 않으면 처녀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도움을 청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²⁵⁾ 이렇게 다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 저항하고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부르짖으며 자신의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다말의 모든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말은 “잠잠하라”며 침묵을 강요받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하게 고립되고 격리된 채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블리스(Caroline Blyth)는 이렇게 성폭력 당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정과 공동체에서 거절하는 것을 통해 디나는 계속해서 고립되고 낙인찍히고 자신을 회복시켜줄 청중을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²⁶⁾ 이것은 디나 뿐만 아니라 다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여성 피해자의 고립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의 부재이다. 디나와 레위인 첩과 다말에겐 분명히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존재는 여기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머니도 여성으로서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입다의 딸의 친구들처럼 서로의 고통을 같이 슬퍼하고 울어줄 여성 연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5) 윗글, 110.

26) Caroline Blyth, “Terrible Silence, Eternal Silence: A Feminist Re-Reading of Dinah’s Voicelessness in Genesis 34”, *Biblical Interpretation* 17 (2009), 505.

5. 남성 보호자와 전쟁

1) 피해자에게 무관심한 아버지

딸들이 성폭력 당했을 때 아버지인 야곱과 다윗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창세기 34장 5절에서 야곱은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철저히 침묵한다. 야곱이 침묵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 이방인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고 디나를 성폭력한 세겜은 세겜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의 힘에 눌렸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이자 디나의 보호자로서 세겜과 하물에게 항의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디나를 돌려보낼 것과 보상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권력이 두려운 그는 디나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또 하나는 디나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의 딸로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아들들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들들이 디나의 일로 분노할 때도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딸 디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침묵하며 세겜의 요구대로 디나를 결혼시키고 끝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모욕을 당했다며 분노하는 아들들을 달래고 설득하지 않음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후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하여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야곱은 그들의 잘못된 복수에 대해 야단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사실에 대해서만 화를 낸다(창 34:30).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로서 적절한 보호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디나의 고통과 아들들의 분노를 무시함으로써 디나의 성폭력 사건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살육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커지게 만들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 무능한 가부장은 가정과 자식을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야곱의 무능한 모습의 배후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3장의 다윗은 야곱과 다른 입장을 가지지만 결국 비슷한 결정을 내린다. 다윗은 암논의 지나친 요구에 담긴 암논의 욕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다윗은 이 사건의 조력자이자 가해자 암논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다말의 아버지이다.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알았고 모든 사실을 들은 후에 크게 화를 낸다. 하지만 그는 화만 냈을 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암논은 처녀를 강간한 죄와 근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레위기 18장의 명령을 어겼다. 이런 상태에서 처녀를 강간한 죄를 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다말과 결혼하게 하거나 다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게 해야 했다. 그리고 만일 레위기 18장으로 인해 다말과 결혼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 레위기 20장에서 명한 것처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따르면 암논의 죄는 민족 앞에서 끊어질 죄이다. 그는 다말의 아버지이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와 도덕을 세울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다음 왕위 계승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장남 암논에 대한 편애 때문에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말에게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그에겐 딸의 상처와 고통과 남은 인생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들의 장래와 왕가의 체면과 왕권의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 다말의 아버지가 아닌 가해자 암논의 아버지로서 행동하며 정의롭지 못한 남성 연대를 형성하였다. 이런 남성 연대는 여성이 어머니와 아무런 연대를 갖지 못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윗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된 것은 밋세바를 성폭행한 사건과 연결된다. 자신도 왕이란 권력으로 밋세바를 성폭행하고 은폐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암논을 감싸주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신앙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다.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한 것처럼 암논의 죄를 지적하여 암논도 잘못을 회개하고 살아날 기회를 주었어야 하지만 그는 죄를 덮음으로 암논이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책임질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두 아버지는 가부장과 왕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식을 보호하고 옹바

른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의무를 실행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서 가부장으로서의 의무를 버렸고 다윗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아들의 죄를 감쌌다.

2) 전쟁: 형제들과 남편

세 사건 모두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시작되어 이민족과의 전쟁, 지파끼리의 전쟁, 이스라엘 내의 전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겜 사건과 압논 사건에서는 여성의 남자 형제들이고 기브아 사건에서는 남편이다. 피해자의 남성 가족들은 피해 여성을 대신해 자신들이 피해자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사건 해결의 당사자로 등장한다.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은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동복 오빠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대한 성폭력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모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 디나의 형제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아버지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디나의 동복 오빠들이 디나를 대신해 피해자로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폭력 사건을 듣고 근심하고 매우 화를 내었고 세겜과 하몰이 결혼을 요청하러 왔을 때 협상 당사자로 나선다. 하몰은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니 결혼을 허락해 달라면서 서로 통혼도 하고 혼수와 예물로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제안하며 진심으로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하몰의 태도는 철저히 남성 가해자 중심적이며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지금 세겜이 디나를 성폭력하는 불법을 저질러서 생겼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인 디나를 집에 무사히 데려다 주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받았을 모욕감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하거나 처벌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하몰은 현재 디나를 자신의 집에 붙잡아두고 사과도 하지 않고 바로 결혼부터 제안한다. 이것은 하몰과 세겜이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

자의 감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혹시 감정이 상했다더라도 많은 혼수와 예물을 주고 결혼을 하면 무마될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결혼하자며 찾아온 것이다. 물론 이런 태도는 성폭력한 뒤 내쫓고 방치한 암논과 다윗보다는 나은 행동이지만 이런 오만한 행동이 결국 야곱의 분노한 아들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세겜의 결혼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화자는 13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디나를 성폭행함으로써 자신들을 욕되게 한 세겜과 그 성읍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할례를 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조건을 건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음으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으로 쳐들어가 세겜과 세겜의 모든 남자를 모두 죽이고 그 후에 다른 형제들은 약탈물을 취하고 세겜 성의 모든 재물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잡아 노예로 삼아버린다. 그리고 엄청난 살육과 약탈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복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명기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한 경우 최악의 벌은 성폭력한 당사자를 죽이는 것이고(신 22:25)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거나 보상금을 받는 것인데 결혼을 요청한 세겜 뿐만 아니라 모든 세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여자를 노예로 삼았다. 디나 한 사람이 당한 성폭력에 대한 복수로 세겜의 모든 남자의 목숨과 세겜의 여자들을 노예로 삼고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절대 합리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의 세겜 정복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이들은 세겜의 남자를 죽인 후 약탈자로 돌변하여 세겜의 모든 재산을 싹쓸이 한다. 27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칼에 죽은 자들 위를 지나가며 노략하였다(עָקַב בְּאוֹרַח הַחַלְלִים וְיָבִיאוּ הָעֵרִי)로 화자는 약탈에 혈안이 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이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

가한다. 이들은 성폭력으로 고통당한 다나의 상처와 피해를 줄여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기본대로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결국 다나의 남자 형제들의 세겜 살육은 자신들의 분노와 부에 대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살육과 약탈이지 다나를 위한 싸움은 아니었다.

(2) 레위인 첩의 남편

사사기 19장의 사건은 여성 피해자의 보호자로 형제가 아니라 레위인²⁷⁾ 남편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른 성폭력 사건보다 심각한 것은 집단 성폭력 사건이자 살인사건이며 이방인에 대한 적의와 배제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사건이다. 첩이 어느 시점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레위인은 집에 도착하자 그녀를 12토막으로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낸다.²⁸⁾ 사무엘상 11장 7절에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떼서 전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이 나온다. 즉,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통해 전쟁을 소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레위인의 행동은 인간성을 상실한 행동으로 자신의 첩을 비인간화하며 사물화 하였다. 자신을 대신해 죽은 폭력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고 묘지에 안장하여 죽어서라도 평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인데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폭력으로 죽은 그녀의 몸에 더 큰 폭력을 가했다.²⁹⁾ 그는 시체를 이용해 이스라엘 사람이 경악과 분노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첩의 시체를 보고 미스바에 있는 여호와

27) 이희학은 레위인이 주로 “그녀의 남편”, “그의 사위”, “그사람”, “주인”, “나그네”, “이사람” 등으로 칭해지며 이것은 레위인이 주인공이 아닌 부차적인 인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희학,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273.

28) 여기서 ‘토막내다(חָטַף; 나타흐)’는 동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을 찢는 것과 동일하다(왕상 18:23). 그리고 ‘칼(חֶבֶל; 마이켈레트)’도 짐승을 잡는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종류의 칼이다(창22:6,10). 전체적으로 레위인이 첩을 토막 내는 모습은 짐승을 잡는 것과 같다.

29) 박유미, 『릿글』(2018, 7), 349.

앞에 모였다. 그리고 레위인은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첩을 욱보이고 죽인 것으로 말하며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선동하며 스스로 사건의 피해자로 나선다. 하지만 그가 레위인 첩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주기 위해 피해자로 나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첩을 희생양으로 죽음으로 내몰았고 희생당한 첩의 시신을 조각내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레위인은 첩의 죽음에 애도하며 그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브아에서 당한 모욕을 갚기 위해 전쟁을 소집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레위인의 선동적인 말에 휘둘러 전쟁을 하기 위해 일어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해자 기브아 사람과 베냐민 지파이다. 여기서 베냐민은 성폭력과 살인을 한 기브아의 불량배를 징계하라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의 말에 기브아 사람이 자신의 형제라고 말하며 가해자를 두둔한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처벌을 받는 대신 베냐민 지파 뒤로 숨어버렸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를 위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로웠으면 기브아의 불량배를 두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전쟁은 불의한 자를 감싼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 자체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도한 복수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고 단지 600명만 살려두게 된다. 이들은 동족을 향해 마치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듯 진멸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분노와 흥분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성들의 아내를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하여 400명의 처녀를 얻었고 나머지 모자라는 200명의 처녀들은 실로에서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다. 사사기 21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폭력의 원인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기 않겠다고 어리석은 서원 때문이다 (삿 21:1). 이렇게 기브아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남성 당사자들의 어리석음과 과도한 복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600명이 나 되는 처녀들은 강제 결혼과 납치와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여성은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인간이 아닌 수단이자 대상물이었다. 레위인은 자신을 대신할 희생물로 생각하였고 이스라엘의 남성들과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자궁' 정도로 여겼다. 사사기 19-21장 어디서든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남성들에게 성폭력 당하고 죽고 납치당하는 여성들의 모습만 보인다. 이것은 이 사회가 남성이 약자인 여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남성 절대 권력의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사기 화자는 마지막에서 이런 시대를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평가한다. 즉,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약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브아 성폭력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3) 다말의 남자 형제 압살롬

암논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다말을 대신해 피해자로 행동한 것은 동복 오빠 압살롬이다. 사무엘하13장에서는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간 다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린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은 성폭력 사람이 암논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네 오라비니 잠잠하라”라고 하며 다말의 입을 막는다. 여기서 ‘네 오라비’가 잠잠해야 하는 이유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암논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큰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처리하길 기다린 것이다. 또한 암논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왕자이기 때문에 다말과 압살롬이 계속해서 암논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다말과 압살롬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압살롬은 현재 다

윗 왕가의 왕위 계승 서열 2위로 이 일로 암논이 실각하고 자신이 왕위 서열 1위로 올라서길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다말의 처지를 생각하며 다윗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다린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이 사건을 덮어버렸다. 다말과 그녀의 오라비인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암논만을 감싸는 다윗의 태도에 압살롬은 암논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압살롬이 일절 말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압살롬이 순수하게 다말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만일 다말을 위한 것이라면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압살롬은 침묵한다. 이것은 다말이 성폭력 당한 것을 빌미로 자신의 정적인 암논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³⁰⁾ 결국 2년 후에 자신이 직접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다. 그는 다윗이 암논을 내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렸기 때문에 직접 정적을 죽이고 때가 되면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올라야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에서 돌아온 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 온 나라를 전쟁에 몰아넣었고 자신은 죽임을 당한다. 압살롬은 다말이 정의를 요구하며 외칠 때 잠잠하라고 말하며 그녀가 당한 성폭력을 이용해 암논을 실각시키고 왕이 되려고 하였다. 그 또한 여성 피해자를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6. 결론

위에서 보듯이 세 건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서 일어난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가부장 사회의 남녀 위계관계, 내부인과 외부인의 힘의 차이, 환대와 적대, 권력자의 횡포 등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신분적 힘의 역학 관계 속에

30) 다말의 이야기는 암논과 압살롬의 왕위 쟁탈을 비추는 조연이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보며 이 부분은 암논과 압살롬의 왕위 쟁탈의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해석을 지지한다. 손종희, “다윗 왕위 계승 순서의 뒤틀림”, 『구약논단』 60집 (2016년 6월), 104.

서 일어난 범죄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위계 속에서 가장 약한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 세겜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세겜이 볼 때는 외부인의 딸이며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딸인 디나가, 기브아 성폭력 사건에서는 외부인이자 여성인 레위인 첩이, 그리고 암논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다윗 왕가에서 아무런 지분이 없는 공주 다말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신의 다양한 힘을 이용해 성폭행하였다. 세겜은 자신이 세겜의 우두머리라는 권력과 남성이라는 권력을 가졌기에 쉽게 디나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잡아두며 결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자신이 기브아 주민이라는 것과 다수라는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하였고 노인은 남성과 아버지라는 위계로 자신의 딸과 레위인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레위인은 물리적 힘으로 첩을 끌어내 가장 힘센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넘겼다.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사회이다. 그리고 암논의 경우도 왕궁에서 다윗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에 대한 금지된 욕망을 갖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성폭력 사건이 공동체의 전쟁으로 번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가해자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성폭력 자체가 힘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을 가진 가해자는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가해 후에도 그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묵살하였다. 이렇게 가해자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가 피해자의 남성 가족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성폭력이 벌어진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하거나 보호자가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거나 남성 보호자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가해자와 보호자들은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 디나와 레위인 첩의 경우는 아예 목소리가 없으며 다말도 목소리는 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대신 여성을 폭행한 남성의 목소리와 남성 보호자만의 음성만 들린다. 그들끼리 협상

하고 이야기하고 전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건은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론지어졌고 결국 여성은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았다. 셋째는 여성 피해자를 대신해 남성 보호자들이 피해자로 행동하는데 이들은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복수와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넷째는 남성 보호자들의 복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나 신명기 율법에 정해진 처벌을 따른 복수가 아니라 항상 과도하게 이루어진다. 세겔 성 전체를 몰살하고 기브아를 포함한 베냐민 전체를 거의 진멸한다. 이런 과도한 복수는 세겔의 경우는 세겔의 오만한 태도와 세겔 성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고 기브아의 경우는 베냐민의 반성 없는 태도와 레위인의 극단적인 선동으로 인해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압살롬의 경우도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변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다섯째는 사건을 적법하게 율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지도자의 부재이다. 가정에선 아버지가 왕국에선 왕이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에선 장로들이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적법하게 판단하고 지도해야 할 아버지인 야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심했고 침묵했다. 다윗 또한 침묵함으로 다말의 피해엔 눈감고 암논의 죄를 덮어주었다. 기브아 불량배를 벌해야 할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은 기브아를 처벌하는 대신 이스라엘 전체와의 전쟁을 선택했다. 결국 적법하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지도력의 부재가 결국 성폭력 사건을 전쟁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재이다. 성폭력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곱과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기브아 사건의 경우 기브아 불량배들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힘과 권력의 논리를 따라 행동하였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지만 지나친 진멸과 어리석은 서원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들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화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행동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며 비판한다.

결국 성폭력 사건이 전쟁으로 연결되는 패턴을 갖게 된 것은 가부장제가 갖는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에서 권력과 힘의 논리에 따라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적인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구조와 비윤리적인 권력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참고문헌

- Blyth, Caroline, "Terrible Silence, Eternal Silence: A Feminist Re-Reading of Dinah's Voicelessness in Genesis 34", *Biblical Interpretation* 17 (2009), 483-506.
- Block, Daniel I., *Deuteronomy* (Grand Rapids, MI : Zondervan, 2012).
- Campbell, Antony F., *2 Samuel* (Grand Rapid: Eerdmans, 2005).
- Keefe, Alice A., "Rapes of Women/ Wars of Men", *Semeia* 61 (1993), 79-97.
- Niditch, Susan,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Pressler, Carolyn, "Sexual Violence and Deuteronomic Law", in *A Feminist Companion to Exodus-Deuteronomy*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Sarna, Nahum M., *Genesis =Be-reshit: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고든 웬함, 「창세기16-50」(박영호역), (서울: 솔로몬, 2001).
원제 Wenham, Gorden J., *Genesis 16-50* (Waco Texas: Word Books, 1987).
- 김이곤, "다윗의 딸 다말 애도송", 「기독교사상」30집 (1986년 9월), 95-114.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 김호경, “성서와 설교: 왜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낮은 목소리-다말”, 「기독교사상」 48집 (2004년 7월), 116-123.
- 뉴섬, 캐롤 A., 린지, 샤론 H.,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박유미, “칼빈의 해석은 영원한 진리?: 여성 본문에 대한 칼빈구약주석 연구”,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104-136.
- ,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동녘, 2015).
- 손종희, “אני אֵלֹהִים-다윗 왕위 계승 순서의 뒤틀림”, 「구약논단」 60집 (2016년 6월), 98-131.
- 송봉모, “디나가 성폭력 당한 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창34,1-31)”, 「신학과 철학」 5집(2003), 31-46.
- 이희학,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250-284.
-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Hospitality)에 관한 소고(小考) -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경이해”, 「구약논단」 45집 (2012년 9월), 34-59.

검색어

디나

레위인 첩

다말

성폭력

전쟁

Rape, a Private Problem or Public?
-A Study on 'Rape on a Female War' Pattern(s)
in the Old Testament-

You-mee Park

Lecturer at Anyang University

Chongshin University Ph. 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texts of rape on females in Genesis 34, Judges 19 and 2 Samuel 13, and thus to reveal that the sexual violence in the Bible is not just a personal crime, but a social crime that occurs in a variety of power relations in a male-centered, patriarchal culture. In Chapter 2, I examined the social background and the context in which each event took place, and I noted that the Old Testament era was male-centered, patriarchal society, and I found that the communities in which the three events took place were not healthy, ethically and religiously. In Chapter 3, I dealt with rape cases focusing on perpetrators. and I found that the perpetrator with power had rape a weak woman. Shechem was the head of the region and thus the man of power. Gibeah residents had power over outsiders because they were the men of Gibeah, and Amnon had mighty

www.kci.go.kr

power because he was the first son of David, who was about to succeed the throne. In chapter 4, I found that all the victims were weakest persons in their community, and the perpetrators and the guardians of the victims completely ignored their words and forced them into silence. Jacob, Dinah's father was completely indifferent to the situation, and David, Tamar's father ignored the victim, Tamar, and overturned the sin of Amnon, the perpetrator. In Chapter 6, I summarized the six reasons why individual sex offenses turned into communal wars. First, there is no apology or reflection from the perpetrator. Second, the guardians deal with the crime for the perpetrator or for themselves, not for the victim. Third, on behalf of female victims, male guardians act as victims, and that for their revenge and profits. Fourth, male guardians always revenge excessively. Fifth, there is no leader who ethically and legitimately resolve the crime. Sixth, God is absent.

In conclusion, the pattern in which rape cases are linked to wars, is due to a patriarchal, male-centered society that turns away victims, and that makes unreasonable and unethical decisions based on perpetrators. Therefore, sexual offenses should not be treated as individual deviations, because individuals and their society can 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Keyword

Dinah

a concubine of a Levite

Tamar

rape

war

- 투고일: 2018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8년 10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29일

www.kci.go.kr